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이수*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Sault Saint Marie (온타리오주)
파견대학	Algoma University	기간	2017. 7. 9(일) ~ 7. 30(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대학교는 홈스테이 집에서 버스타고 5~10분정도 걸렸고 (제가 산 홈스테이 집이 가까운 편에 속했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대학의 규모는 우리학교보다는 작았으며 한 건물 안에서 모든 수업을 듣기 때문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방학이어서 학생들은 거의 없으며 다른 나라 유학생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컴퓨터로 테스트를 봐서 반을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2주 동안은 콜롬비아 학생들과 함께 수업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국 학생들끼리는 앉지 못하게 하셨고 두 명씩 짝지어서 영어로 질문하거나 게임을 하였습니다. 수업내용은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며 수업준비는 할 것이 없습니다. 과제는 없었지만 피피티 만들어서 발표하는 수업이 있었고 마지막 주에는 메모리 북을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로 만들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가는 게 좋습니다. 테스트는 한 수업 당 두 번 정도 봤고 꼭지 시험 느낌의 테스트였습니다.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으셨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첫째 주에는 딸기 따기, Rotary Festival 봉사활동, Colour Blast가 있었습니다. 딸기 체험은 모기와 벌레 등이 많아서 좀 힘들었으며 생각보다 딸기가 달지 않아서 따지 않았습니다. 딸기는 딱만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안사고 싶으면 안 따셔도 됩니다. Rotary Festival 봉사활동은 그날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많이 없어 정말 조금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Colour Blast는 색깔이 들어간 색소를 던지기 때문에 신발이나 바지는 버려도 되는 걸 챙기는 게 좋습니다. 티셔츠와 선글라스는 제공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따로 샤워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수업위주여서 활동은 비행기 박물관, 봉사, lake 가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lake 갈 때 수영복은 챙겨야하고 좋고 슬리퍼 같은 거 챙겨 가면 좋습니다. 역시 따로 씻을 순 없어서 수건으로 닦고 옷 갈아입</p>

	고 집에 가야합니다. 세 번째 주는 스시 집, 봉사가 있습니다. 딱히 준비할건 없고 스시집이 맛있었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가기 전에 추울 수 있다고 긴팔 챙기라는 것을 보고 조금 챙겨갔는데 생각보다 더 추웠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무조건 긴팔 긴바지를 입어야할 정도로 춥습니다. 비는 생각보다 오는 날이 많았고 우산은 꼭 챙겨가야 합니다. 반팔, 반바지 위주 보다는 봄가을에 입는 남방이나 간단한 외투, 얇은 긴팔, 긴바지를 많이 챙기고 반팔정도 챙겨 가시게 좋습니다. 교실 안에도 에어컨이 나오기 때문에 춥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굉장히 평화롭고 홈스테이 집 근처에는 사람 지나다니는 것을 거의 못 봅니다.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10시전에만 들어가면 괜찮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0)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홈스테이 집은 방은 혼자 쓰며 화장실은 지하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일본인 유학생과 같이 썼으며 건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적응하고 나서 3주 동안 굉장히 편안하게 있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0) 외부식당 ()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아침은 시리얼이나 머핀, 요플레, 식빵을 먹었으며 혼자 먹었습니다. 점심은 매일 같은 샌드위치를 싸주셔서 2주 동안 먹다가 힘들어서 홈스테이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고 남은 음식을 싸주셨습니다. 학교에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데워먹을 수 있습니다. 저녁은 밖에서 친구들과랑 먹거나 집에서 먹었습니다. 변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점도 많지 않아 거의 집에서 많이 먹었습니다. 음식은 전반적으로 빵이기 때문에 좀 힘들었으며 라면이나 핫반, 김, 통조림 등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컵라면은 마트에 비슷한 것이 팔긴 합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학교에서 집이 가까운 편이여서 5~10분정도 걸렸습니다. 버스정류장은 집 앞에 있었으며 시간대가 애매해서 30분정도 빨리 갔습니다. 버스는 30분에 한 대씩 있으며 평일7시 이후, 주말에는 1시간에 한번 씩 있어서 불편 합니다. 구글맵은 꼭 깔아놓는 것이 좋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830,3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행자보험	31,779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및 기념품	28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선글라스는 챙겨가는 것이 좋고 샌들보다는 운동화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기가 크고 우리나라보다 독해서 모기약은 챙겨야합니다.

유심을 하면 편하긴 합니다. 학교와 집은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만 밖에서는 잘 안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사실 영어실력이 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늘진 않았지만 동기부여가 크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짧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다 지나고 보니 굉장히 빨리 지나갔고 한국으로 돌아오니 꿈같이 느껴집니다. 홈스테이 가족들과도 정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선생님들도 다들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갔다 오는 것이 좋습니다. 수세인트마리는 굉장히 시골 같은 곳이기 때문에 사실 놀러 다닐 곳은 많이 없지만 공기가 굉장히 좋고 자연적 이여서 마음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여서 좋았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color blast 참여



딸기 따기 체험



홈 파티



Lake superior



Agawa Rock



피아노 콘서트